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사랑하는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학업을 이어가기로 용기를 내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내린 결정이기에 대학은 여러분을 기다리며 충실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여러분이 복학만 한 채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스승들은 진심으로 기뻐했고, 국민들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동료들과 함께 배우며, 미래의 의사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이자 사회적 책무입니다.

여러분이 복귀를 결심한 만큼, 이제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수업 운영과 학사 처리는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학사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등록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시,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학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정당한 학업과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입니다.

대학은 여러분이 차질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강의실로 돌아와 직접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을 운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한다면, 의총협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의 학업 복귀는 여러분 개인의 의사로서의 성장과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루고 우리나라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따뜻한 4월 봄날에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1일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

양오봉 · 이해우